화엄 이치 완벽해설… 學僧 40년 원력 '오롯이'

대강백 무비 스님, 〈화엄경〉 강설 81권 완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한국불교 대강백이자 일생을 경전연구에 몰두한 조계종 前교육원장 무비 스님이 〈대방광불화엄경〉 81권 전부를 해설한 강설집을 세상에 내놓았다. 2014년 1권을 펴낸 데 이어 4년여에 걸친 대작불사는 한국불교 역사에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된다. 불교계도 이를 경축하며 부처님 전에 강설집을 봉정했다.

"화엄을 봐야 진짜를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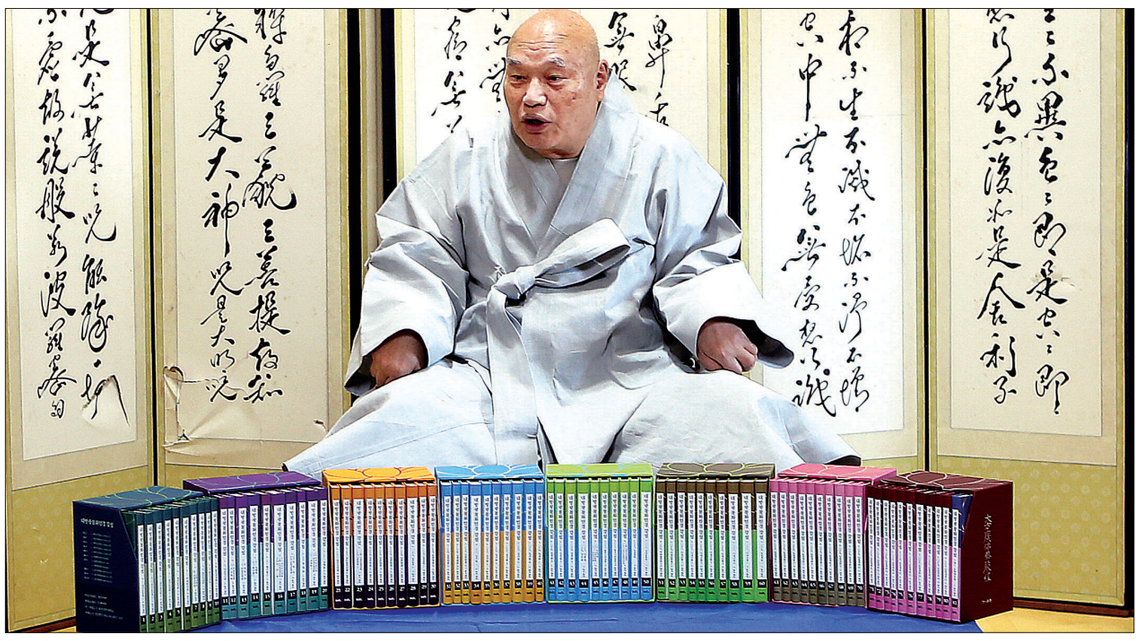
조계종(총무원장 설정)과 금정총림 범어사(주직 경선)는 4월 4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대방광불화엄경 강설〉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봉정법회에는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해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前포교원장 혜총 스님,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 나눴다.

봉정법회는 부처님께 먼저 책을 올리는 봉정식으로 시작을 알렸다. 이어 무비 스님은 〈대방광불화엄경 강설〉 1000세트를 조계종에 기증했다. 〈대방광불화엄경 강설〉은 총 81권으로 구성돼 이번에 기증한 책을 권수로 나누면 총 8만1000권에 달한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봉정사에서 "무비 스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법공양은 이 나라 방방곡곡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야 한다"며 "부처님 은혜와 가피가 충만하고, 부처님 진리 속에 인류평화와 세계평화가 이뤄지는 그날까지 우리도 함께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2014년 1권 발간 후 4년만에
강설집 완간, 국내 최초 사례
"화엄 공부해야 부처님 만나"
범어사서 4월 4일 봉정법회
사부대중 1000여 명 동참해
무비 스님 강설집 1천질 기부

무비 스님은 편찬사에서 "〈화엄경〉의 한자 수가 10조9만5000천자가 넘는다. 바다에 모래처럼 많다"며 "나는 화엄경을 줄여서 한마디로 '이대로가 화장장엄세계요, 이대로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말한다. 여러분이 부처님이다. 〈화엄경〉을 읽고 공부해야 이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강조하며 대중이 경전공부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 前 교육원장 무비 스님이 4월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방광불화엄경 강설〉 81권 완간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금강석 같은 원력 앞에선

〈대방광불화엄경 강설〉은 화엄경 전체 해설집으로는 국내에서 처음 출간됐다. 〈화엄경〉은 80권에 보현행원품을 포함해 총 81권으로 구성된 대경전이다. 강설집에 대한 대중의 요구는 오래됐지만 그 내용이 방대해 전부를 풀어낸 이가 없었다.


4월 4일 범어사에서 열린 봉정법회에서 무비 스님이 부처님 전에 강설집을 봉정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무비 스님이 〈화엄경〉을 처음 만난 것은 1963년 해인사 강원 화엄경반에서다. 1970년대 초, 구례 화엄사 구층암에서 범룡 스님의 〈화엄경합론〉을 사경한 것이 두 번째 인연이다. 화엄경 강설집 원력은 같은 해인 1970년대 중반에 세웠다. 탄허 스님의 〈화엄경합론〉 출판에 동참하면서 대중에게 어려운 한자가 안타까웠다. 무비 스님은 좀 더 쉽게 대중에게 〈화엄경〉을 알리길 서원했다.

이후 무비 스님은 〈화엄경〉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994년에는 〈한글화엄경〉을 단락으로 나눴다. 1997년에는 한문 화엄경에 현토를 달았고 현대화된 강원 교재로 출판했다. 이번에 나온 〈대방광불화엄경 강설〉은 40년 이상 연구한 무비 스님의 결과물이다.

"한문으로 된 〈화엄경〉을 보면서 한편으로 답답했다. 현대화된 말로 쉽게 번역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무비 스님의 원력은 40년 만에 세상에 현현(顯現)한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스님은 지병으로 인한 수술로 하반신이 마비되고, 손을 다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스님은 멈추지 않았다. 어려움은 스님을 더욱 분발하게 했다. 집필을 위해 컴퓨터를 배워 워드 작업을 했다. 밤을 꼬박 새우며 집필에 매달렸다. "마치지 못하고 열반에 들까봐"라는 염려도 있었다. 결국 마지막 81권은 병원에서 만났다.

이제 스님은 개정판 집필에 착수했다. 1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무비 스님은 "책을 내고 나니 아쉬움이 많다"면서 "더 좋은 해설을 전하고 싶어 바로 개정판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화엄경〉은 대승경전 가운데 꽃이다. 승속을 막론하고 모든 대중이 읽고 공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지 발굴 중 금동반가사유상 출토

영월 흥연선원지서 발견해
출처 분명한 최초 반가상
주조 · 도금기법 연구 예정

강원도 영월 소재 사지(寺址) 발굴 중 금동반가사유상이 발견됐다. 발굴 중 금동반가사유상이 출토된 것은 처음 있는 사례다.

(재)강원문화재연구소(소장 오제환)는 "지난해 11월부터 영월군(군수 박선규)과 함께 진행하는 흥녕선원지(강원도기념물 제6호)의 발굴조사를 진행하던 도중 금동반가사유상이 출토됐다"고 4월 3일 밝혔다.

출처가 분명한 최초의 금동반가사유상인 흥녕선원지 출토 금동반가사유상은 높이 약 15㎝, 폭 약 5㎝이며, 조사지역 내 건물지에서 발견됐다.



출토 반가상에 대해 연구소 측은 "전체적인 유물 상태는 좋은 편이며 일반적인 반가부좌 형태로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에 걸치고 오른 무릎 위에 올려놓은 오른팔로 턱을 괴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라며 "얼굴은 원형에 가까우며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상의는 걸치지 않은 모습이고 머리에는 삼면이 돌출된 삼산관(三山冠)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장율사가 세웠다고 전해지는 흥녕선원은 선종 구산선문 가운데 하나인 사자산문파의 본거지로, 통일 신라시대의 승려인 징효대사(826~900)에 의해 크게 번창한 사찰이다. 징효대사 탑비(보물 제612호)와 부도 등은 현재 법흥사에 남아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일산병원 '승가케어' 확대 본격화

건강증진센터 확장 오픈… 스님 전용 진료실 마련

동국대일산병원에 스님들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동국대일산병원은 4월 2일 건강증진센터 4층 로비서 건강증진센터 확장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을 비롯해 이진호 의료원장, 조성민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건강증진센터를 확장하며 동국대일산병원은 스님들이 수행자로서 위의를 지킬 수 있도록 스님 전용 진료실과 전용 대기실, 전용 탈의실을 별도로 마련했다. 또한 스님들만의 특화된 승가케어 검진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는 동국대일산병원이 지난해부터 조계종 승려복지회, 전국비구니회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뤄지는 사업들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은 "이번 확장을 통해 동국대일산병원 건강증진센터가 나날이 발전되길 기원한다"면서 "우수한 의료진과 함께 고객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파트너로 새롭게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국대일산병원이 확장 개소한 건강증진센터는 검진프로그램 구성 강화와 내원객의 편의성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대기 공간 확장과 기존에 운영됐던 내시경검사실을 3곳에서 4곳으로 늘리고, 회복실을 기존 5병상에서 10병상으로 대폭 증설했다.

동국대일산병원은 "건강증진센터는 내원객들이 수면내시경 검사부터 회복 안정까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성 제공에 중점을 뒀다"면서 "정상 운영에 들어간 만큼 많은 불자들과 시민들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화쟁위, 최저임금 주제 집담회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주제로 4번 째 집담회를 열어 그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4월 4일 종로구 전법회관에서 최저임금 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불교적 진단과 해법이 집중 논의하는 집담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가적 검토와 충실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사회 갈등과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2019년 최저임금 심의에 앞서 왜 2020년까지 만원이어야 하고, 우리 경제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전문가적인 검토와 더욱 충실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상생'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선, 노동자와 사업주, 영세업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 바라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향후 과제로 △최저임금위 내 적폐 극복할 제도개선 마련 △위반율 최소화 위한 전방위 대책 마련 △을들의 연대 진전 등을 제안했다.

박진형 기자

金剛戒壇 보살계산림

영축총림 통도사는 646년 신라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가사와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스님들의 수계의식을
봉행하는 금강계단(金剛戒壇)을 쌓아
부처님 정법의 맥을 이어 온 계율 근본도량입니다.

자장율사의 계율정신을 되새기고 부처님 지혜광명을 잇고자
무술년 금강계단 보살계산림법회를 봉행하오니
널리 동참하시어 세세생생의 불연을 맺는 인연공덕 되소서



보살계 일정

입재 2018년 4월 20일(음. 3.5) 금요일
회향 2018년 4월 22일(음. 3.7) 일요일

• 동 참 금 5만원
• 차량안내 부산 온천장 지하철 1번 출구 앞 – 오전 8시~9시
• 기도접수처 화엄전 055)381-1288 / 팩스 055)372-7010

영축총림 통도사